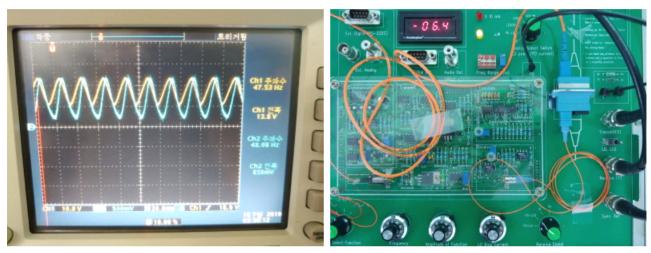
[실험 2 결과 보고서]

2분반 12161756 윤성호

1. Red LED의 입력파형 대비 출력 파형 그래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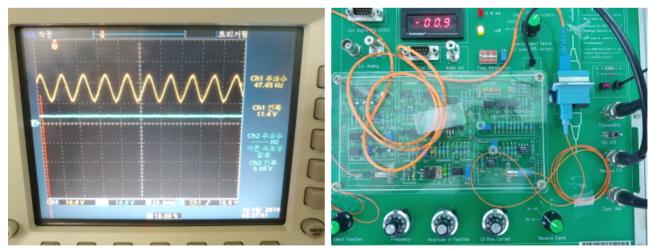
가. Frequency : 48.08Hz 나. Amplitude : 850mV 다. LD dc bias : dial-5



[그림 1, 2] Red LED 측정 결과 및 환경

2. Green LED의 입력파형 대비 출력 파형 그래프

가. Frequency : -나. Amplitude : 0 다. LD dc bias : dial-5



[그림 3, 4] Green LED 측정 결과 및 환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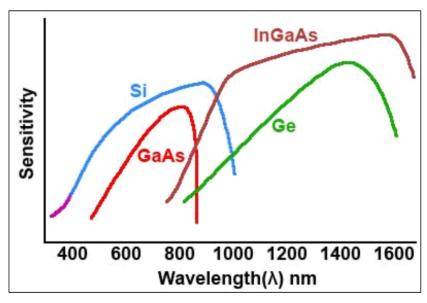
3. 고찰

가. Red LED 실험에서 입력파형과 출력파형 사이 위상지연이 발생하는 이유

- 1) LED 응답 주파수는 크게 세 가지 요소, ①활성 영역에서의 도핑 level과 ②재결합 영역에 투입된 carrier의 수명(τ_i), ③LED의 기생 용량(parasitic capacitance)의 영향을 받는다.
- 2) Drive current가 주파수 ω 에서 변조되고 P_0 가 변조 주파수 0에서 방출되는 power라 하면,
- 3) 광출력 power는 $P(\omega) = P_0[1 + (\omega \tau_i)^2]^{-1/2}$ 가 된다.
- 4) 기생 용량은 활성 접합부에 carrier 주입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광출력 또한 지연될 수 있다.
- 5) 따라서 위상지연이 발생한 이유는 Red LED의 기생 용량 때문이다.

나. Green LED 실험에서 출력파형이 나오지 않는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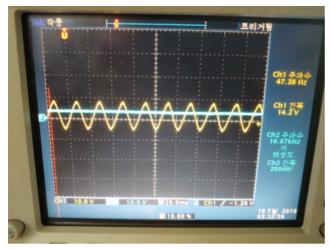
- 1) 실험에서 LED의 빛은 연결된 플라스틱 파이버를 통해 PD로 전해진다.
- 2) Photodiode는 다이오드 소재와 조사된 빛의 파장에 따라 감도가 다르다.
- 3) 적색 빛은 650nm, 녹색 빛은 555nm 근방의 파장을 가진다.
- 4) 아래 [그림 5]를 참고해볼 때 Si와 GaAs Photodiode에서 녹색 빛이 적색보다 감도가 떨어진다.
- 5) 따라서 출력파형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녹색 빛의 파장이 짧고 감도가 약해 PD가 검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.



[그림 5] learnabout-electronics.org/Semiconductors/diodes_27.php

다. DC bias current 변화에 따른 LED 파형 모양의 변화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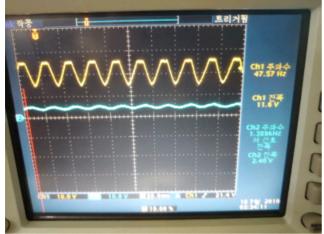
- 1) DC bias current에 대한 광출력은 전류 포화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비례 관계를 가진다.
- 2) 전류 포화점 이상으로 전류를 가해주면 더 이상 출력은 증가하지 않는다.
- 3) 실험에서도 역시 LED 입력 파형은 current dial 5 이상이 되자 점점 sin 형태를 잃어갔고 출력 파형은 dial 8에서부터 보이지 않았다.
- 4) 따라서 DC bias current 변화에 따른 LED 파형 모양의 변화는 전류 포화점 이후로 광출력이 더이상 증가하지 않는 LED의 특성 때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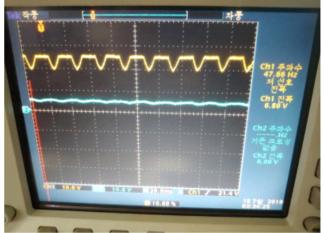


Chi 주의수 47.11 Hz Chi 전폭 11.8V Chi 전폭 11.8V Chi 전폭 11.8V Chi 전폭 0.00V

[그림 6] Red LED, current dial: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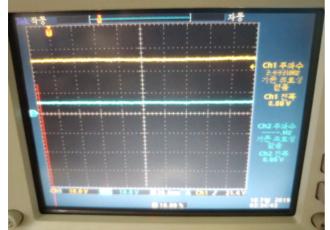
[그림 7] Red LED, current dial: 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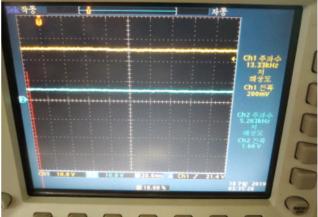




[그림 8] Red LED, current dial: 6

[그림 9] Red LED, current dial: 7





[그림 10] Red LED, current dial: 8

[그림 11] Red LED, current dial: 10

라. 평가

- 1) 위 실험에서 출력 파형 변화를 실감나게 확인할 수 없었다. 이는 출력 파형(CH2)의 vertical scale 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.
- 2) [그림 6~11]에서 오실로스코프의 measure 기능 또한 화면에 보여지는 파형을 토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또한 출력 파형의 주파수와 진폭도 정상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모습이다.